

대학교수자들의 아토크래피를 통해 살펴본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한 인식 탐구*

손 연 주 윤 정 진 김 성 원†

동명대학교

창의·인성연구소 유아교육과 창의·인성연구소

오래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여기’에서 페미니즘과 퀴어라는 자연문화적 현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덧입히며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가르침의 일선에 선 대학교수자들의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페미니즘과 퀴어에 관해 자발적 관심을 가진 대학교수자 5명을 대상으로 삶-쓰기적 아토크래피(A/r/tography) 연구를 실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를 넘어서 인간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맥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함이 나타났다. 둘째, 퀴어에 대한 인식은 AI시대에 기술발전예 따라 성이 변모될 수 있는 것으로 되며 더욱 심화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퀴어는 삶의 맥락에서 무관심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함을 이야기하였다. 끝으로 셋째, 페미니즘과 퀴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가십을 넘어서 논의가 심화되어야 하며, 그것이 전문적인 교육의 맥락에서 탐구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과 퀴어링에 관한 맥락을 후기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깊게 숙고하고, 그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하게 되어가기 위한 사유의 길을 열었음에 그 의미가 있다.

주요어 : 교육심리, 페미니즘, 퀴어, 퀴어링, 아토크래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4093387).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여성심리학회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작임.

† 교신저자: 김성원, 동명대학교 창의·인성연구소, (48520)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E-mail: cpri2019@naver.com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나는 뿌리내려 있다.
하지만 나는 흘러간다.”

- Virginia Woolf, 『파도』, p.69

지금 여기에서 지속되어지고 있는 시간, 공간, 물질이 얽힌 세계는 끊임없이 운동하며 변화해 나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인간은 혁명이라고도 부르며, n개의 물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일컫는다. 위 Virginia Woolf의 말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는 때로는 긍정적인 ‘변혁’으로, 때로는 다소 우려섞인 ‘(돌연)변이’로 평가받으며 그 변형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인간이 주도하려고 하나, 완벽하게 주도할 수 없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 갈 것인가.’라는 방향성의 문제이다. 즉, 세계의 운동과 인간의 삶은 의식한 바에 따라 행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소한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지향하며 변화의 바다를 향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평적 사유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에 대한 물음’ 앞에서 세계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점은 미래를 향해 무언가를 발전해 나아가되, 그것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지구는 자연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넘어선 지구열대화의 도래로 인한 기후위기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엔데믹과 함께하는 삶으로 지속적 문제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김미곤, 2020; The Core Writing Team, Hoesung Lee, José Romero, 2023).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구적 위기와 경고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또한 지구에 거주하는 이들의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서로 다른 모든 생명, 물질, 기계의 공존과 공생에 관해 묻도록 한다(이현희, 2023).

이와 같은 배경에서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안한 바 있다(WEF 세계경제포럼, 2022). 이는 2015년 UN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달성하기로 한 인류 공동의 목표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SDGs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다. 이와 같은 SDGs는 단편적으로 볼 때는 5번째 목표 내에서 ‘Gender Equality’를 통해 여성과 여아의 권익신장과 성평등 달성에 함께 주목하는 듯 보이나, 그 등장배경의 깊은 철학적 숙고를 통해 살펴보면 이는 탈성장과 여성성의 의미를 제고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존적 지속가능이지 않는가라는 근원적 질문들이 시작되었고, 경제성장 정책이 가져온 성장주의와 개발주의, 발전주의의 자연파괴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은 인간중심주의적 ‘발전’에서 벗어나 여성이 아닌 ‘여성성’을 통해 돌봄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민주적 성장으로써 탈성장(degrowth)을 논한다(김은희, 2022).

이 탈성장에 관한 주목은 여성주의 담론들과 복잡하게 얽히며, 페미니즘과 퀴어의 현재를 재구성하고 있다(권순현, 2017). 본 고에서는 페미니즘과 퀴어를 함께 다루기에 앞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전적 정의에서 페미니즘은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

의 인정을 기반으로 시작되어 여성의 사회적 인 이미지와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권리 확장 및 성차별적인 대우의 타파를 통해 여성해방과 여성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김명소, 이현주, 한영석, 2006; 김명소, 이은진, 2008; 류지현, 2024; 손숙미, 2023). 그러나 페미니즘은 팔색조와 같아서 한마디로 그 형태를 정의하기 쉽지 않으며, 수행적 측면에서 젠더의 개념과 얽혀, 단순한 학문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의 형태로 존재한다(조소연, 이나영, 2023). 초기 페미니즘은 여성운동의 물결로서 1920년 미국 여성에게 투표할 법적 권리를 주었던 참정권 운동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이후 노동인구에서 여성의 증가와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 운동을 이끌어내며 여성안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로 나아간다(김은아, 2016; 조한혜정, 1998; Felski, 1998). 이는 페미니즘에 다양한 색을 입히며,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문화 페미니즘, 실존주의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용어의 등장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아가는 여성의 지위와 목소리가 함께 변이되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최근에는 지속가능성과 함께 에코페미니즘 및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윤리학적 측면에서 여성이라는 신체를 넘어 돌봄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인류애적 측면의 논의로 심화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비평과 몸의 수행성에 관한 새로운 담론들, 도나 헤러웨이의 유인원과 사이보그, 여자를 넘나드는 괴상한 친족간의

실뜨기, 퇴비주의에 관한 담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심화된 논의와 페미니즘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 내에서 인식되어지는 페미니즘은 ‘여자 페미니스트’에 대한 색안경을 작동시키며, 여전히 보수적 수준에서 레즈비언과 같은 성적체성 문제, 여성의 권리만 강화하려는 성 역할의 문제, 여성성이 제거된 남성화되고 반항적인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다. 이때, 여성은 출산을, 남성은 군대를 간다는 대결 구도 속에서 페미니즘은 더욱 편협한 성의 이분법 문제로 대두되는 아쉬움을 갖는다. 그에 따라 페미니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일베남’, ‘페미X’ 등의 저속한 비난만이 오가는 안타까운 현상도 만연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페미니즘을 본 고에서 퀴어와 함께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완전히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수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퀴어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이는 과거에는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로, 때로는 맥락에 따라 동성애를 혐오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즉, 그것은 특이하거나 예상 밖의 무언가를 뜻해왔으며, 이성애 ‘규범’을 위반하거나 그렇게 여겨지는 이들을 비방하기 위한 역사를 가져온 것이다(Marinucci, 2018). 그러나 최근 퀴어는 단순히 ‘이상한’의 의미를 넘어서서 정체성을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위치들의 무리로 설정하려는 후기구조주의적 작업을 레즈비언과 게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점차 발전되어오고 있다(Jagose, 2018).

주디스 버틀러는 퀴어의 규범화는 결국 퀴어의 비극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여 특정한 방향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퀴어는 단순히 무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성소수자(LGBT) 등의 다양화로 분류되거나 젠더이분법에 맞서 젠더의 단서를 모호하게 충돌시키려는 젠더퍼킹(Gender fucking)이 아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또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의 대립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소수자성의 혁명이자 대안(Marinucci, 2018)으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소수자성을 향해 미끄러져나가고 변화해 나가며 정체성의 무수한 갈래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최근 퀴어는 퀴어링(Queering)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페미니즘과 퀴어는 현재 함께 논의되기도, 따로 논의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퀴어를 페미니즘의 젠더기반에 대한 반동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인류애적 소수자 정체성과 기본권에 기반한 대안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퀴어와 페미니즘 이론은 수많은 연결점을 갖고 이론 간 결합된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퀴어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퀴어의 지향과 퀴어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지향 모두를 함축한다. 이 둘이 갖는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라는 공통의 관심사는 퀴어와 페미니즘이 가져온 경계를 허물고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을 향해 나아감에 있다(Latour, 2017). 본 고에서는 복잡한 문제이나, 이것이 공통으로 ‘성’에 대한 담론을 횡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가지를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실제 페미니즘과 퀴어의 문제는 사회 내에서 실제적으로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 성전환자를 바라보는 시선, 동성연애, 퀴어축제 등의 다각적 형태로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끊임없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과 퀴어가 언론과 사회보도에서 자극적으로 접근되는 것과 달리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김수자, 2019). 특히 학문의 다양성과 깊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대학에서 또한 교양이나 필수교과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비평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엄혜진, 신그리나, 2019)이 지금의 현실이다.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만큼(김은지, 2021; 김은하, 2020) 사회 내에서는 이론과 실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청장년층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 백래쉬, 퀴어축제 반대와 같은 현상은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이해에 기반한 갈등의 성격을 지니므로,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교수자들의 입장에서부터 이에 관한 삶의 측면에서의 깊은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접근의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수자들의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다소 부족하다(엄혜진, 신그리나, 2019; 정인경, 2022). 페미니즘과 퀴어는 복잡한 역동성을 갖지만, 그에 대해 함께 바라보는 시선과 연구 또한 부족하다(김하영, 2018; 루인, 2018). 이와 같은 민감한 연구주제는 때로 언어로만 드러내는 것 이면에 예술적인 접근과 표현이 갖는 무형의 힘이 더 큰 전달력이나 내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강은영,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후기질적연구의 일환인 아트그래피(Art/ography)

연구방법을 통해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에 목적이 있다. 페미니즘과 퀴어를 함께 살핌으로써, 이에 대한 시선이 한 개인 안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가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교육자들이 먼저 페미니즘과 퀴어에 학문적 관심을 갖고, 해당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토크래피를 통해 살펴본 대학교수자들의 페미니즘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토크래피를 통해 살펴본 대학교수자들의 퀴어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자 이야기

본 연구자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배경과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교육의 분야에서 학습자들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연구를 위해 다양한 사회의 현상을 철학적으로 읽어내는 연구물과 소셜미디어 및 영화작품을 분석하여 교육적 함의를 전달하는 수업등을 진행해 온 배경을 갖는다. 연구자들은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의 문제와 퀴어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자들 간에도 합의되지 않는 지점과 의견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에 해당 부분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였으며, 연구자들이 전문적으로 실시해 왔던 질적연구의 분야에서 연구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목적표집으로 선정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 대해 자발적인 관심을 갖는 자, 둘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자이나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자(페미니즘과 퀴어 관련 비전공자)이다. 이는 교수자들의 일반적 인식을 보다 질적으로 깊게 탐구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2023년 3월 3-4주의 기간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예술기반연구의 일환인 아토크래피의 경우 2-3인의 소수의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나(강은영, 2009), 일반적인 심층면담을 포함한 후기질적연구에서 5-7명의 선정기준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총 5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기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김교수

김교수는 여성으로 나이는 51세(2023년 기준)이다. 그녀는 4년제 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이며, 인문교양계열에서 인성에 관한 교양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배우자와 어린 딸이 있으며,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해 들어는 보았으나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였고 최근 인성 교양교과목을 운영하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하였다.

문교수

문교수는 여성으로 37세이며, 사범계열을 전공하고 강사로 재직중에 있다. 다양한 학교를 다니며, 전공교과목을 수업하고 있고 권리와 복지에 관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다. 그녀

는 젊은 시절부터 성별과 한국문화 등에 관심이 많아, 페미니즘에 대해 고민을 해 온 바 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

박교수

박교수는 34세로 현재 박사를 수료하고 대학강의를 다니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범계열을 전공한 바 있다. 그녀는 Deleuze 와 같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해 왔으며, 그에 따라 포스트휴머니즘 등에서 논의하는 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은 있었으나, 수업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바는 없었다. 결혼 후 어린 자녀(여아)를 두고 있다.

이교수

이교수는 남성으로 34세이며,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나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를 사귀어 이력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사적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며,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는 사회분야의 사범계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차교수

차교수는 남성으로 35세이다. 그는 보건복지계열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대학 내에서 인간과 사회 등의 교양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해당 강의에서 페미니즘, 퀴어의 문제를 다루어볼 수 있을지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및 절차

예술이란 자신의 감각과 기억을 언어를 넘어서 또 다른 물질을 통해 새롭게 육화하

는 힘의 작업이다. 예술 기반 연구(Arts-Based Educational Research)란 예술의 특이성에 집중하여, 교육 연구에서 예술적 접근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의해 시작된 연구방법이다. 정확한 명칭은 예술 기반 교육 연구(Arts-Based Educational Research)이지만, 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이를 ‘예술 기반 연구’로 축약하여 제시하고 있다(강은영, 2009). 예술 기반 연구는 ‘여러 장르의 예술 제작에 적용되는 방법을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재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 또는 일부 과정에 채택하는 교육연구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술 기반 연구는 연구자의 독창성에 의해 연구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연구자이자 교육자인 연구참여자가 예술을 표현하는 자로써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표현해내는 후기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토프래피 접근은 교수사이자 예술가, 그리고 연구자로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다중적 정체성을 인정하며 그들의 상관성을 실행연구의 차원에서 새롭게 보여주는 예술 실행연구의 접근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예술 교육에 대한 연구자들을 A/tographer로서 재정의 하며 그들의 삶과 연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김희연, 2004).

본 연구는 대학교수자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미세지각과 작용들을 포괄하거나 표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고, 소수화된(퀴어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 아토프래피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아토프래피 연구방법은 페미니즘 및 퀴어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이항대립이 거부된 생성의 과정 속에 위치시킴

으로서 고정된 연구 질문에 따라 연구 절차를 밟아 확정된 지식을 생산하는 기존의 연구방식을 뛰어넘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의 지속적인 연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적 강점을 갖는다(강은영,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자들이 자신의 삶을 써내려가듯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밀하게 작동하는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상기하고, 끊임없이 생성하며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연구문제에 관해 각 1회기씩 총 2회기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과정에서 사전에 페미니즘과 퀴어(각각 또는 둘 다)에 관해 사진, 이미지, 그림, 회화, 조소, 음악 등 다양한 예술적 방법으로 자신의 인식을 사전에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면담은 해당 예술작품들을 토대로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질문지에 대한 예시는 아래 표 1과 같다.

아토크래피는 연구의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들의 다중적 정체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과 맥락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 사실로서의 현상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해

석 또한 연구참여자의 면담을 토대로 연구자가 함께 복잡하게 얽혀 의미를 생성해가는 것임을 뜻한다. 즉, 본 연구에 등장하는 모든 실행과 자료의 기술은 단일 혹은 개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얽힌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아토크래피를 통한 자료의 수집에서 각 2회기에 걸친 면담이 실시되었으며, 면담의 실시 이전에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예술작품의 이미지를 함께 공유하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면담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각 자료에 대한 전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전사자료는 1회기 면담 당 A4용지(글자 10포인트, 줄간격 160) 20장 내외의 전사본이 생성되었다. 전사자료에서 예술작품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하여 데이터의 맥락 내에서 작품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Creswell(2011)의 나선형 4단계의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이는 첫째, 텍스트나 이미지를 적절하게 텍스트

표 1. 면담 질문지 예시

차시	주제	질문예시
1	페미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즘에 대해 평소 알고 있는 바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 사회 현상(미디어, 광고, 기사 등)에서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사례가 있나요? -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경험을 알려주세요. - 향후 페미니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	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어에 대해 평소 알고 있는 바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 사회 현상(미디어, 광고, 기사 등)에서 퀴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사례가 있나요? -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퀴어에 관한 경험을 알려주세요. - 향후 퀴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단위로 전환하는 ‘자료 관리’, 둘째, 전사본을 여러 번 읽은 후, 전체 자료를 파악한 상태에서 전사본, 예술 작품 등에 분석적 메모를 작성하는 ‘반복적 메모 읽기/메모하기’이다. 셋째, 이전 단계에 기초하여 코딩과 범주화하고 주제, 개념 등을 생성하는 단계인 ‘기술/분류/해석’의 단계에서는 코드(키워드)를 추출하여 유목화하고, 소주제로 범주화한 뒤 각 연구문제에 따른 최종주제를 도출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텍스트, 그림 등으로 제시하는 단계인 ‘자료의 제시 및 시각화’를 통해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자료 분석의 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예술적 표현물이 수집된다. 그러나, 이는 별도로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화된 접근이 아니라, 연구 결과 기술에서 병렬식 기록하도록 드러난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질적 진술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적

용되었다. 또한 자료의 정리, 분석 및 해석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질적연구분야의 전문가 교수 1인과 동료 연구자 2인에게 조언을 구하여 검토함으로써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료의 진실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영천,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에 초점을 두고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의 연구 결과 기술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에 따른 연구 결과를 순차

표 2. 자료 분석과정

자료 수집					
1차면담 전사자료		2차면담 전사자료		연구참여자 예술작품	
↓		↓		↓	
코드(키워드) 추출					
↓	↓	↓	↓	↓	↓
주요 코드 추출					
대결구도, 마주보기	지속되는, 페미니즘, 갈등	AI시대 성전환 수술	퀴어, 남들과 다른 삶, 무관심	대중성 대중매체	교육, 워킹맘, 공식, 갈등
↓	↓	↓	↓	↓	↓
소주제로 범주화					
페미니즘, 남성, 여성,	페미니즘, 갈등	AI시대, 탄생 퀴어 문제	퀴어, 그들만의 리그, 무관심	페미니즘, 퀴어, 대중성가십	페미니즘, 퀴어, 교육 보기
↓	↓	↓	↓	↓	↓
최종주제 도출					

표 3. 연구결과 요약

소주제					
페미니즘, 남성 VS 여성 수도를 넘어서	여전히 존재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갈등	AI시대에 탄생한 퀴어의 문제	퀴어,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무관심	페미니즘과 퀴어, 대중적 가십을 넘어서	페미니즘과 퀴어, 교육으로 접근하기
↓	↓	↓	↓	↓	↓
최종주제 도출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		퀴어에 관한 이야기		페미니즘과 퀴어의 방향성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

페미니즘, 남성VS여성 구도를 넘어서

과거 페미니즘은 일부 페미니스트의 사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MeToo운동 이후, 이는 비교적 대중적인 맥락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또한 초기 페미니즘과 사회적 분위기가 변모하며 페미니즘이 곧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필수로 여겨야 하는 것만은 아님에 공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하니까 남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딱히 그냥 나쁘다라고 표현은 안 되고 그냥 당연한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오히려 개들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평등한 사회가 저는 많이.. 물론 고위직이나 이런 데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낮긴 하지만,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김교수, 1차 아토크래피 연구)

김교수는 페미니즘에 반하는 이대남에 대한 젊은 세대 남성들의 사례를 들며, 과거와 달리 현재의 사회는 비교적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평등기반의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는 자신의 표현을 당당하게 전달하는 MZ세대의 문화적 특성(이나영, 정용림, 2018)과도 연결된다.

“사실 최근에 봐요, 묻지마! 이거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다 일어나는 건 다 여성이 많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속가능발전)목표5번(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에는 또 여아와 여성....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하고.. 사실은 그냥 이런 말에서부터 태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여아라고 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로서 남성인데 남성도 사회적 약자가 있잖아요. **이 언어가 가진 힘이 너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콧혀서 생각하는 사람들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을 떠나서 약자에 대한 그거를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참여자 박교수, 2차 아토크래피 연구)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을 연구자의 제안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함께 연결지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 일컬어지는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여성으로 국한 시키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가 함께 발맞추어 소수자 간의 열림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논의하였다.



그림 1. 있는 그대로

“저는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유아, 이런 백인, 이외에 또 나머지 인종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섞여서 결국 보면 그게 이거(작품)처럼 안예빠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유독,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서의 그런 차별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는 엄청 자본주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피해 받는 거 같고,, 왜냐하면 군대 가는 게 돈 많이 받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자는 군대, 여자는 임신 대결

구도로 가니까. 군대도 누구든지 갈 수도 있고 금방 말하면 그 사람이 성전환을 해서 또 갈 수도 있고 좀 서로 마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박교수, 2차 아토프래피 연구)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는 페미니즘이 여성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더불어 살아감의 측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존재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갈등

연구 참여자들은 전체적 측면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입장차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맥락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면 여전히 갈등과 고민을 남겨두고 있었다.

“탈 코르셋은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남자가 외모에 남자가 좋아하는 성향에 맞춰서 여자들이 이제 거기에 맞춘다. 이게 탈 코르셋이거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그런 거를 벗어나겠다. 그런 건 좋지. 왜냐하면 남자들이 긴 머리카락에 여자들을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일부러 길어서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페미니즘 여자들이 대부분 머리를 짧게 자르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뀌면 거기까지 해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데이트하면 막 남자가 하루종일 운전하고 하는데 옆에서 페미 사상 주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머리 짧게 잘랐다 이러면 이제 페

미로 보는 거야. 페미니즘 얘기하자마자 소개팅 바로 거절하잖아. 에프터 절대 안해. 소개팅 바로 끝.” (참여자 이교수, 1차 아토프래피 연구)

남성의 연구 참여자인 이교수는 자신의 연애 경험을 떠올리며,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탈코르셋과 같은 문화적 맥락의 흐름에는 동의를 하지만, 일상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페미니즘에는 공감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게 사실 시대에 가서는 진짜 떠느리가 다 해야되고, 사위는 또 100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유교문화 때문에 더 힘든 수도 있지만, 페미니즘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참, 그냥 바뀌기 힘든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김교수, 1차 아토프래피 연구)

이는 문교수의 이야기에서도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저는 결혼을 아직 안했지만,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딸을 꼭 낳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차별들.. 그것이 없는 세상을 이 아이가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거든요. 누가 페미니스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이 이야기가 나온 근원을 생각하면 그건 차별인거니까.” (참여자 문교수, 1차 아토프래피 연구)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삶의 맥락으로 들고 왔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이처럼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며 사회의 차별에 기인하는 것임을 논의하였다. 이는 실제 페미니즘에 대한 접근을 개인의 맥락을 넘어, 사회 안에서 논의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맥락들에 대한 목소리가 섞여나가야 함(김하영, 2018)을 보여준다.

퀴어에 관한 이야기

AI시대에 탄생한 퀴어의 문제

신체적 성과 사회적 성에 따른 자아의 인식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고 지속된다(Wilchins, 2021).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퀴어에 대해 물음하였을 때 이를 신체적 성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였으며, 최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성의 전환 등의 기술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익숙하게 접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퀴어의 문제는 AI시대에 ‘성’이라는 것이 변형가능하며 때로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변화되며, 더 심화된 문제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림 2. 무제

“사실 남자 AI든 여자 AI든 누구랑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거고...(중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젠더, 퀴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토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술이나 호르몬주사나 이런 걸

맞아서 우리 신체가 변할 수 있게 되서 그런 거잖아요. 남자도 임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성이 불변의 그계 아닌거지.** 이 AI시대에는 그계 저는 엄청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일부러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색들을 다 뭉그러트려서 그 위에 다시 성을 뿌리는 거예요 밑에 박스로 표현한 것도...** (하락) (참여자 문교수, 2차 아토프래피 연구)

신체적 성은 더 이상 타고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변형되고 주조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물음 앞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AI기술력의 발전에 상응하여 성전환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성은 변형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신의 성을 선택하고, 변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이야기하였다.

“성이라고 하는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요즘 아기 가지면 딸인지 아들인지 풍선으로 터트려서 막 인스타도 올리고 하는 것도 ‘돌중 하나’이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일인데.. 또 지금 사회를 보면 특히 퀴어, 트랜스젠더 이런 건 성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진짜 소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했다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내 존재를 나타내는 일부인거고 이 날 때부터 갖게 된 거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싶어요. 그게 이제 정체감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러다보면 ‘내가 누구인가’ 이걸 스스로 정

립해가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참여자 김교수, 1차 아토프래피 연구)

위 김교수의 말처럼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아정체감,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으며(Ruin, 2018), 그렇기에 신체적 성은 단순하게 기술력의 발달에 따라 쉽게 변형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아래 차교수 또한 비슷한 맥락의 인식을 보였다.

“왜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성은 만들어지는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답론이 아니고, 진짜 만들어지는 시대가 온건데.. 육체가 바뀌는 그렇게 보면 사실 나~~중에는 성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려나 싶고..** 태아의 성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퀴어도 ‘인권이나, 취향이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인권도 인간의 권리라는 건데.. **이걸 인간으로 한정지을 수 있나, 아니면 한정하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참여자 차교수, 1차 아토프래피 연구)

차교수와 같이 성이라는 것을 인간을 넘어 기계의 성과 사랑의 포스트휴머니즘적 문제로 확장하여 고민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과 열림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퀴어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왜 화두가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 그것이 사회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연결된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퀴어,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무관심



그림 3. 그들만의 리그

“그냥 딱 보면 뭔가 알록달록 예쁜 것 같고, 서로 섞이는 것처럼도 보이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단 거죠. 이제 사실은 분홍색은 분홍색 길로, 초록색은 초록색 길로, 그냥 제 살길 살아가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여기 노랑이랑 초록이 만나서 연두가 되는 것처럼 아주 일부만 이제 그런 생활, 남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 친구 중에 게이가 한명 있었는데, 개가 그러더라고요. 게이는 게이끼리 알아본데. 시그널이 있데, 하하하. 근데 그걸 일반인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보통은 잘 모르고, 옆에 게이가 지나가도 못느낀다는 거지.” (참여자 이교수, 1차 아토그래피 연구)

“퀴어는 솔직히 잘.. 말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으니까.. (중략) 가끔 강의 때도 보면 유난히 붙어 있는 남자애들 보 해보지만, 쉽게 ‘너희 사귀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우리 한국이. 그냥, 원래부터 없지는 않았는데, 그냥 TV로 보는 거고. 그래서 약간 그런걸 더 먼나라 얘기로 생각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문교수, 1차 아토그래피 연구)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하나의 성에 소속되어 페미니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환경과 달리 퀴어의 경우 일상에서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우므로 관심이 쉽게 가지 않음을 직면하고 있었다.



그림 4. 지구 다양성

“이게 모양이 좀 그렇기는 한데 의도는 이제 ‘지구 다양성’을 표현하려고는 했어요. 처음에는! 그니까 빨강, 파랑이라는 두 가지 만이 아니고, 연두색이든, 검정색이든, 반짝이든 뭐든 다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사실 SDGs 안에도 보면 페미니즘적인 부분들은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퀴어를 생각하고 나도 이걸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계획이든 목표든 그게 갖는 한계는 다 어쩔 수 없지만, 그니까 다 포괄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좀 다르다고 해도 다 포괄하고 배려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열리는 사회.” (참여자 차교수, 2차 아토그래피 연구)

그리고 이 무관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일부 그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실제 인간의 인식을 형성하는 경험이란 신체로 감관되어진 작용들을 통해 기억과 지각작용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유를 탄생시킨다(전혜은, 2024).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페미니즘과 퀴어가 인식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삶의 맥락에서 경험되는 경우가 부족하기에 체감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고, 이는 페미니즘보다 퀴어가 더욱 그러함을 보여주었다.

페미니즘과 퀴어의 방향성

페미니즘과 퀴어, 대중적 가십을 넘어서

신체화된 개인의 성을 넘어서 보편적이거나 평이한 삶을 살아간다고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않는 ‘대중’은 페미니즘과 퀴어의 문제를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체감하고 있었다(오보영, 이상희, 2017).



그림 5. 무제

“퀴어가 특히 이제 성이랑 관련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얘기되는 것도 유튜브랑 이런데서 이 성에 대해서 엄청 오픈마인드고, 음악도 선정적이

고, 만화, 웹툰 이런 것도 BL, GL?? 해가지고 누가 ‘공’이고 누가 ‘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야한 것들을 건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 자체가 이런 성적인 거에 개방되니까 퀴어도 이슈화되는 거 같은데.. (중략)사실 예전 홍석천 시절에는 저것처럼(그림 4)동성연애가 방송되는 거나, 퀴어축제 이런건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엄청 개방됐잖아요.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죠. 다 똑같은 사람이기 뭐.” (참여자 문교수, 1차 아토그래피 연구)

“페미니즘, 퀴어같은 진지해야 할 문제들을 이렇게 대중문화나 오락거리로 접하면 편견이 생기고 그걸 직면할 수 없게 되거든요.” (참여자 문교수, 2차 아토그래피 연구)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과 퀴어, 특히 퀴어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대중매체에 의한 작용임을 논의하였다. 실제 대중매체의 많은 부분에서는 페미니즘과 퀴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녹아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이가현, 2023).



그림 6. 7가지 무지개

“난 이 퀴어축제, 레인보우 축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이 과연 맞나 의문이 좀 들어요. 사진으로도 보면 그게 막 화장도 그렇고, 속눈썹도 붙이고, 옷도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게 오히려 ‘퀴어는 좀 튀는 거 좋아하고,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편견을 키우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냥 서로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7가지 색이나 7가지 성이 아니라 진짜 무수한 것들을 더 담아야 되고, 그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문교수, 2차 아토프래피 연구)

이와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시각은 결국 그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고,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계 안에서 인간의 존재론은 결코 모두에게 평평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다양한 철학과 교육의 담론들은 존재에 대한 이론이 윤리적인 관계론으로 함께 올려져야 할 것이다(몸문화연구소, 2022).

페미니즘과 퀴어, 교육으로 접근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과 퀴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를 전체론적인 시선에서 묶어서 바라보고 있었다.

“딱 페미니즘하면 82년생 김지영 생각이 나는데. 왜 ‘나는 페미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외국에는 엄청 그게..



그림 7. 82년생 김지영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페미니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너 일베야?’, ‘너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냥 그거에 대한 너무 이렇게... 간 쪽으로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오빠(남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어떤 운동인지 모르고 ... 전혀 모르고 그냥 쓰는 용어처럼 되어 버리는 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나라에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만 만드니까, 그런데 이거 다 저는 다 정치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이슈화를 만들어서 더 이 양극화를 더 심하게, 무감각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박교수, 1차 아토프래피 연구)

이처럼 페미니즘과 퀴어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누락된 채 가볍게 논의되

고 있기에 그 본질을 깊게 숙고하거나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만연함을 지적하였다.

“내 개인의 생각은 솔직히 완전히 막 궁정적일 수는 없다고 해도, 어쨌든 이게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드러내면 안되는 거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차별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면 절대 안되고 그거는.. (중략) 이런 문제들은 사실 혼자서는 힘들고, 같이. 이 집단이 같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야지. 그게 자기만의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계속 뭔가 **애들끼리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되는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결국 이 사회는 묶여 있거든.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되요.** 그건 사회라고 볼 수 없지.” (참여자 이교수, 2차 아토프래피 연구)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함께’는 교육이 공공적인 집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담고 있다. 어떠한 사회적 담론에 대한 사상은 구성원들의 성격, 성별, 문화, 욕구 등 복잡한 요인이 함께 얽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8. 무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부딪히자!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누구나 다 다른데, 거기서 오는 불만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 그걸 이렇게 이 스프레이 물감으로 표현을 한거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분사가 되고, 표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싫든 좋든 서로 막 뒤엎키게, 영역도 침범하고.** 사실은 페미니즘도 보면 2030대 공격하는 사람들이 결국 남자가 아니라 같은 여자가 공격을 한다고! 지금 시 어머니가 아들 낳아 가지고, 결혼시키면 결국에는 20~30대 애들을 공격하는 게 50~70대들은 여자가 공격한다고, 그래서 여자 싸움이야. 그래서 이게 **개인차원이 아니라 교육이나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로 갈등을 오히려 담아내야 된다고** 보는거지.” (참여자 이교수, 2차 아토프래피 연구)

연구 참여자는 갈등을 오히려 건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을 논하였고, 그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온라인보다는 공식적인 공간이 되기를 즉, 교육의 맥락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논 의

감각적인 것은 근접한 것이며, 이는 자신이 또 다른 형태의 존재로 인식하는 신체의 변형을 통해 일반화된 보편을 한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 구체화된 보편으로 생기(生起)하도록 이끄는 힘을 갖는다(몸문화연구소, 2022). 페미니즘과 퀴어에 관한 이야기들은 현재 끊임없이 교차하며 새로움을 양산하고 있으나, 그것은 감각되는 이들에게는 근접한 것으로

존재하며 감각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일반화된 보편으로 무채(無彩)화되어 있다.

본 연구는 무채화된 페미니즘과 퀴어의 색을 다채롭게 생성하는 일에 함께 뛰어들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접근에 주목하고, 일상의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한 대학교수자들의 인식을 아토그래피라는 후기-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를 넘어 인간성의 측면에서 상호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임을 공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해당 논의들을 나누었을 때 개인의 경험 내에서는 페미니즘으로 인해 경험했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더욱 삶의 맥락에서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그것이 성별을 넘어 상호간의 배려적 측면에서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페미니즘이 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한 손숙미(2023)의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갈등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국 각 개개인이 서로 다른 입장과 심리작용을 마주하고,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다. 인간의 자아는 성 담론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변적이며, 그것은 감정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표출하고 소통하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Luke, & Susan, 2020).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이론이 아닌 삶의 맥락에서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깊게 바라보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의 두 번째는 퀴어에 대한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퀴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에는 AI 시대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다. 즉, 성은 존재론적으로 확정적인 동시에 불확정적인 부분을 함께 취하는 것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미라외(2022)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성(Sex)이 태어남과 동시에, 성장의 과정에 영향을 받으며 확정되어 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평생에 걸쳐 확정되고 견고화되며 고민이 필요없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히 AI시대의 기술발전으로 따라 성의 전환, 가상의 성, 로봇과의 사랑(동성애)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다른 변혁적 삶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연구결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여성, 남성, 기계 등이 뒤섞인 포스트휴머니즘적 ‘몸’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음(몸문화연구소, 2022)을 시사한다. 즉, 퇴비주의가 말하는 바를 떠올린다면, 미래사회에 지속가능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성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동시에 불확정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들추어내고, 경계를 횡단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퀴어의 문제는 페미니즘과는 달리 일상 속에서 체감되지만, 그것이 개인의 삶의 내밀한 맥락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일은 아니기에 무관심과 체감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퀴어의 문제가 당사자들에게 신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야만 인식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오혜진, 2022). 이는 퀴어의 문제가 단순하게 이론으로 접근되거나, 전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의 글을 통해 이해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삶의 맥락에서 감각되어지는 사례들을 충분히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삶의 경험을 떠올려 다양한 이야기를, 퀴어에 대해서는 다소 무감각했음을 앞선 결과들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페미니즘과 퀴어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과 퀴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한 맥락 내에서 이들을 함께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대중매체가 페미니즘과 퀴어의 인식을 전문화시키기 어렵고, 편견을 확장하고 있기에 이를 넘어서야 함을 제안하고 교육의 측면에서 두 가지 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함께 배워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는 교양교육 사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접근이 공교육과 같은 공식적인 방향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김지영, 추주희, 신지원(2023)의 연구 및 김수진(2024)의 연구와 그 맥을 함께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페미니즘과 퀴어가 서로 다르면서도 '퀴어 페미니즘'과 같이 교차성의 측면에서 사유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 소수자를 위한 윤리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의 목소리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Wilchins, 2021).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그 자체와 다른 생각에 관해 윤리적으로 상호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태도와 인성이 교육의 장에서부터 필요함을 시사한다.

윤리적 사유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에는 결국 그것에 대한 정의적 이해를 기초로 하므로, 본 연구는 퀴어와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자료의 다양화된 생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대학의 교육에서 페미니즘과 퀴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공 및 교양과목은 소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확장하여 대학의 교수자들이 수업에서 페미니즘과 퀴어를 이론화하고, 실제화하여 다룰 때 해당 집단의 역동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 또는 교수자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대중매체의 가십을 넘어서, 페미니즘과 퀴어에 관한 갈등을 세계 내에서 마주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페미니즘과 퀴어를 통한 성 정체성을 이해하고 드러내는 과정이 개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나윤경, 2022)와 연계된다.

모든 존재의 행위들은 자신의 존재론에 따른 인식이 동반된 것이며(몸문화연구소, 2022), 건강한 행동은 건강한 자아인식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자아의 형성은 자신의 경험과 단절된 외부로부터 결코 발생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물질적 참여와 상호간의 간섭,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에서 갈등을 덮어두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그 과정에서 자아를 형성해 나가야 함을 제안하는 것은 결국 “교환과 생성의 움직임은 지평(Dolphijn & Tuin, 2021; 26)”을 넘나들며, 서로가 공동-주체적으로 자아를 구성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교수자들은 대학 내에서 학습자들이 함께 마주칠 수 있는 토론과 PBL형식의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갈등을 수면화하고 학습자 자신의 이야기를 외부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공식화된 수업을 구성하고, 학습자의 자아 형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대학교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페미니즘과 퀴어에 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과 퀴어의 소수자성을 지속적으로 평평하게 해 나가기 위하여 그것이 교육의 맥락에서 더욱 치열하게 공론화할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즉, 편견을 넘어 퀴어와 페미니즘의 성, 젠더, 몸, 수행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름, 만남 등의 가치를 통해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였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더 커다란 물리적 장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보편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교육과 그 실천들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페미니즘과 퀴어의 대학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연구물을 생성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그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본 연구의 주제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및 나이,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확장 및 심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정치적, 윤리적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전문가 협의회 및 학습공동체 구성 등 심화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은영 (2009). 예술기반 교육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7(1), 45-59.
권순현 (2017). 성평등과 경제성장. *여성연구논* 20, 47-74.
김경옥 (2023). 과학소설을 활용한 페미니즘 교육.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14(1), 1557-1569.
김명소, 이은진 (2008). 한국 남성의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및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1), 1-18.
김명소, 이현주, 한영석 (2006). 한국 여성의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및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83-105.
김미곤 (2020).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보건복지포럼*, 6-19.
김선영 (2023). 온라인 커뮤니티 ‘에팸코리아’로 살펴본 ‘이대남현상’. *한국언론정보학보*, 118(4), 34-75.
김수자 (2019).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 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43, 94-125.
김수진 (2024). 취약성을 통한 성평등 교실의 가능성: A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영길 (2021). 인권의 담론과정에 나타난 자기파기적 현상 연구: 인권의 원칙과 유형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아 (2016). 월버의 통합적(Integral)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365-393.
김은지 (2021). 페미니즘 미술가의 시각문화교

- 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2020). 몹시도 퀴어한 페미니즘 인문기행. 도서출판여이연: 여성이론 43, 152-163.
- 김은희 (2022). 경제성장과 성평등정책의 애매한 관계, 타고 넘기. 도서출판여이연: 여성이론, 46, 43-63.
- 김지영, 추주희, 신지원 (2023). 지방대의 페미니즘 교육 현실에 관한 비판적 성찰 - C대 학교의 젠더관련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2(3), 155-196.
- 김하영 (2018).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 관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운경 (2022). 신자유주의적 ‘역량강화’ 대학교육의 한계: 시대적 요구로서의 페미니즘 중심의 공공성 부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 젠더와 문화, 15(1), 7-38.
- 류지현 (2024). 역담론으로서 페미니즘과 규범들: 남성 페미니스트 주체화에 개입하는 규범은 무엇인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 젠더 & 문화, 39(2), 357-401.
- 몸문화연구소 (2022). 신유물론. 서울: 펠로소픽.
- 석추영 (2020). 페미니즘 문학교육 연구-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중국조선어문, 4, 90-96.
- 성미라, 고현남, 김미진, 김승미, 김연실, 서유진, 연영란, 유시연, 이수정, 이영신, 최미영 (2022). 재미있는 심리여행. 서울: 한울.
- 손숙미 (2023). 페미니즘에서 양성평등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정책시리즈, 155-158.
- 엄혜진 (2018). 페미니즘 교육은 (불)가능한가?.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34(3), 1-37.
- 엄혜진, 신그리나 (2019).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실과 효과.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19(1), 51-90.
- 오보영, 이상희 (2017). 인터넷 여성운동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성적 정체감 및 자아정체감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CQR-M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391-416.
- 오혜진 (2022).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페미니스트-되기의 해방과 곤경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 젠더와 문화, 15(1), 39-79.
- 이가현 (2023). 인본의 한류 붐과 현대 한국 페미니즘 문학 -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96, 113-132.
- 이경수 (2020). 포스트휴먼 시대 시 교육의 역할과 방향-새로운 시대의 윤리를 표방하는 시 교육 내용에 대한 시론(時論).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193, 197-228.
- 이나영 (2019). 섹슈얼리티를 ‘급진적으로’ 이론화하기: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의 발전과 조우.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53(4), 137-180.
- 이나영, 정용림 (2018). 퀴어링 소시오로지 : 사회학과 섹슈얼리티, 퀴어 이론의 경합과 성장.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 사회, 26(2), 61-104.
- 이현희 (2023).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강제실시 적용에 관한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은 (2024). 퀴어 페미니즘 현상학자 게일 샬러먼. *도서출판여이연: 여성이론*, 49, 189-205.
- 전혜은, 루 인, 도 균 (2018).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서울: 여이연.
- 정인경 (2022). 페미니즘 교육,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편)(2021), 『페미니즘 교육은 가능한가-차이를 탐색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성평등교육을 위하여』, 서울: 교육공동체벗. *한국여성학* 38(2), 191-194.
- 조소연, 이나영 (2023). ‘여덕’을 퀴어링하기: 젠더와 섹슈얼리티, 페미니즘과 퀴어는 팬덤과 어떻게 조우하는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 젠더 & 문화*, 38(1), 5-46.
- 조한혜정 (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한국의 여성과 남성 2*. 서울: 또하나의문화.
- 차현주, 한연추, 권상희 (2021).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중 리뷰에 나타난 페미니즘 프레임 연구.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89, 5-46.
- 최숙희 (2022). 한국과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비교분석과 시사점.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19(1), 1-20.
- 치 리 (2022). 페미니즘과 퀴어의 언어로 아이들 읽기 <퀴어돌로지>, <페미돌로지>. *교육공동체벗: 오늘의 교육*, 69, 308-316.
- 한우리 (2023). 우리의 ‘퀴어한’ 검둥이 여성-되기의 정치성. *영미문학연구회: 안과박*, 54, 246-278.
- 홍보람 (2021). 한국 ‘여성’ 동인문화와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연구: 탈BL(Boys’ Love) 담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uno Latour (2017).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e Regime*. Catherine Porter 번역. 영국 Cambridge : Polity Press. ISBN 978-0-7456-8433-8.
- Creswell, J. W. (2011). *연구 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 approaches]. (김영숙, 류성림, 박관우, 성용구, 성장환, 유승희, 임난숙, 임청환, 정종진, 허재복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8년 출판)
- Danial, F. & Jason. F. (2014). *심리학 좀 아는 사람: 그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이종훈 역). 서울: 북돋음라이프.
- Dolphijn, R. & Tuin, I. D.(2021). *신유물론: 인터뷰와 지도제작*. [New materialism: interviews & cartographies]. (박준영 역). 경기: 교유서가. (원저 2012년 출판)
- Jagose, Annamarie, and Lee Wallace (2018). *The Second Woman: A 24-Hour Lesson in the Gendered Performance of Intimacy. The Conversation*. February 28.
- Latour, B.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대칭적 인류학을 위하여*. [Nous n'avonsjamais ete modernes :essai d'anthropologie symetrique]. (홍철기 역). 서울: 갈무리. (원저 1991년 출판)
- Luke, F., Susan, M.(2020). *테크 심리학*. (김동규 역) 서울: 비잉.
- Marinucci, M. (2018). *Inflationary tensor fossils and their implications*. Università Degli Studi Di Padova.
- Felski, R. (1998). *근대성과 페미니즘(Gender of Modernity)*. 김영찬, 심진경 옮김. 서울: 거

- 름아카데미.
- Ruin (2018). 젠더로 경합/불화하는 정치학: 트랜스젠더퀴어,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 연구의 이론사를 개괄하기. *도서출판여이연: 여성이론* 38, 101-131.
- Springgay, S., Irwin, R. L. & Kind, S. (2005). A/r/tography as Living Inquiry Through Art and Text. *Qualitative Inquiry*, 11(6), 897-912.
- The Core Writing Team, Hoesung Lee, José Romero (2023).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38-115.
- Wilchins, R. (2021). *퀴어, 젠더, 트랜스*. (시 우 역). 경기: 오월의 봄.
- WEF 세계경제포럼 (2022). Committed to Improving the State of the World. World Economic Forum.

1차원고접수 : 2024. 08. 29.

심사통과접수 : 2024. 12. 13.

최종원고접수 : 2024. 12. 30.

The Education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Feminism and Queer’ Studies through the A/r/tography of University Professors

Son Yeon Ju	Youn Jeong Jin	Kim Seong Won
	Tongmyung University	
Creativity Personality Research Institute	Early Childhood Education	Creativity Personality Research Institute

In the ‘now-here’, where we are living in a long future, the natural and cultural phenomena of feminism and queer are becoming more complex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vo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feminism and queerness among university professors who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teaching. To this end, five university professors who voluntarily took an interest in feminism and queer culture were subjected to life-writing atographic (A/r/tography) research.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feminism should be understood as a human being beyond the confrontation between men and women, and that there is still a conflict in the context of one’s own life. Second, the perception of queer people has emerged as a more serious social problem as it is possible to transform sexuality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AI era. He also talked about how queer people are often indifferently accepted in the context of life. Finally, third, the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feminism and queer should be deepened beyond gossip through mass media, and it should be explored in the context of professional educ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deeply considers the context of feminism and queering, which have recently become a hot topic, through the method of post-qualitative research, and by revealing the awareness, it opens the way for thinking for society to become sustainable together.

Key words : Educational Psychology, Feminism, Queer, Queering, A/r/tography